

국제정치에 있어서 말, 상징의 연성권력이론: 이론화를 위한 試論*

이 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협력전공 조교수

본 논문은 국제정치에 있어서 말과 상징을 이용한 권력, 즉 연성권력(soft-power)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론화하는 기초적 시도이다. 국제정치에 있어서 연성권력은 개념만이 존재해 왔을 뿐, 정교한 이론화 작업이 빈약하였는데, 이 논문은 (1) 상황변화 가속화의 가설, (2) 네트워크 효과의 가설, (3) 정체성 구분과 이미지 조작의 가설, (4) 신뢰성의 영향력 가설이라는 네 가지의 기초적 가설을 통하여 국제정치에 있어서 연성권력의 이론화를 모색하였다.

◆ 주제어: 연성권력, 말과 상징, 자유주의, 시공간적 압축

1. 머리말

이 논문은 세계화 및 정보화로 인하여 발생한 시공간적 압축(time-space compression)속에서 국제정치 행위자가 말과 상징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어떻게 연성권력(soft power)을 만들어 나가는가를 실증적으로 이론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시공간적 압축이 어떻게 말과 상징이라는 국가 및 국제정치 행위자의 권력도구의 성격을 변화시키며, 궁극적으로 국가 간 권력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체계적인 이론 틀을 시론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 논문은 말과 상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세계화 시대에 권력으로 전화되는지를 체계화된 이론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기왕의 세계화 논의 및 권력정치에 대한 비판이론, 그리고 물리력과 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주류 국제정치학 이론 및 연구와 차별된다. 또한 구성주의 국제정치학 연구와 달리 생각, 말, 상징이 세계 및 국가간의 이해관계와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는 것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관찰하거나, 그러한 변수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면서 사후적으로, 기술적(記述的)으로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생각, 말, 상징이 권력의 도구로서 국제정치 행위자들에게 어떠한 기회와 도전을 가져오고 있으며 그러한 기회와 도전이 세계화로 인하여 어떻게 증폭되고 있는지,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1-003-C00110)

또 그 증폭을 행위자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밝힌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보면 본 논문은 권력정치와 그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취한다고 할 수 있으나,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를 포괄하는 보다 다양한 행위자를 상정하고 있으며 권력정치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물질적 능력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생각, 말, 상징을 다루고 있어 모라브치크(Moravcsik, 1997: 513-57)가 주장한 국제정치의 자유주의(Liberalism)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첫째, 세계화와 국제정치 간의 관련성을 따지는 기왕의 작업에서 발견되는 연구의 공백에서 출발한다. 즉 세계화에 관한 기왕의 국제정치학적 논의는 상품, 생산, 화폐 등 경제활동의 세계화와 미국 중심의 문화적, 제도적 전파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말과 상징이라는 비물리적 권력도구가 세계화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국제정치학적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특히 19세기 말의 세계화와 비교하면 세계화의 속도와 범위가 20세기말, 21세기의 세계화를 19세기 말의 세계화와 구분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고 할 때, 속도와 범위 면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말과 상징의 세계화에 대한 관심이 국제정치학에서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은 국제정치학 연구에 있어서 상당히 커다란 공백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말과 상징을 어떻게 조작하느냐가 국가를 포함한 국제정치 행위자에게 매우 중요한 권력의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비판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는 연구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전략이 가능한 것인지를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론화하고 체계화한 국제정치학 연구가 많지 않다는 것이 이 논문의 또 하나의 문제의식이다. 강대국이나 여타 국제정치 행위자의 말과 상징(조작)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한국이 예외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대응, 전략의 개발이 한국의 국익 증진과 보호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적 연구는 차치하고라도 초보적 문제제기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말과 상징의 조작은 이와 관련된 특정 인프라만 깔려 있으면 가장 저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즉 연성권력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권력수단이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물리적 권력도구가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국제정치적 권력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연성권력화의 기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만 한국의 국가이익과 정책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을 만들 수 있다. 그러기에는 이에 대한 이론화 작업이 선행하여야 한다.

II. 선행연구

1. 국내정치 및 사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

국내 정치 및 사회를 대상으로 한 언어, 상징(의 조작)과 권력관계를 연구한 기존의 연구는 매우 방대하다. 이미 막스 베버(Max Weber)는 지배(domination), 그리고 권위(authority)를 설명하는 카리스마에 대한 연구에서 언어 및 상징의 중요성을 주장한 바 있으며,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와 하버마스 (Jurgen Habermas)도 의사소통에 주목한 권력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부르디외와 푸코는 탈근대이론의 관점에서 상징적 권력, 담론의 권력을 논하고 있다.

베버(Weber, 1978: Chapter X, 941)는 지배(domination)에 관한 연구에서 언어공동체 내에서 지배하고자 하는 집단이 어떤 방언을 공식 언어로 채택하는가 하는 것이 지배의 형성 메커니즘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말, 언어의 사용과 권력의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고전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베버(Weber, 1978: Chapter III)는 권위(authority)에 대한 연구 중 카리스마에 의한 권위는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생겨난다고 하였는데,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초자연적 지도력이나, 혁명적인 지도력에서 생겨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의 말과 상징적인 행동은 바로 권력으로 전화되어 지시와 복종이라는 권위의 관계가 지도자와 피지도자 사이에서 생겨나게 된다.

베버의 이러한 연구는 세계화 시대의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복잡성이 증대된 현대사회, 그리고 세계화된 사회에서는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초자연적 힘보다는 지도자의 지속적인 지식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물론 초자연적 힘에 의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에 비해 절대적인 신뢰의 공고함이 떨어질 수 있으나 지속적인 전문적 분석으로 신뢰를 쌓은 지도자의 말과 상징적 행위는 현대사회에서 권위로 전화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베버의 카리스마와 권위에 대한 연구는 전문성과 말, 상징의 맥락에서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본론에서 취급되겠지만 이러한 전문성, 신뢰성의 카리스마적 지도자는 세계화에 의해 초국경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제가 형성되고 있지만, 베버의 연구대상에는 국제적인 수준의 카리스마는 포함되고 있지 않다.

한편 부르디외(Bourdieu, 1994: 192-197)의 정치적 장(political field)에서의 상징적 권력(symbolic power)논의가 막스 베버의 권위에 관한 논의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지속적인 지식과 분석의 뛰어난에서 생겨나는 신뢰와 믿음, 그리고 거기에 기반한 권위라는 권력적 작용을 부르디외가 직접 논하지는 않았지만 신뢰(credit), 믿음(credence)의 창조와 파괴 (스캔들, 의심, 오보 등)를 논하는 내용,

그리고 정치적 자본으로서의 명성, 잘 알려짐 등을 논하는 부분이 이와 유사하다. 부르디외의 이와 같은 연구 역시 세계화 시대의 상징적 권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전문성, 신뢰성을 지닌 지도자의 상징권력의 초국경적 창조뿐만이 아니라 매우 빠른 속도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아 상징권력이 초국경적으로 파괴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스캔들, 의심의 전파속도의 가속화는 매우 중요한 국제정치적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역시 부르디외의 직접적인 연구대상에서는 벗어나고 있다.

의사소통 행위에 집중하여 말, 상징(조작)과 권력 간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연구한 작업은 아렌트와 하버마스의 작업을 들 수 있다. 아렌트는 권력(power)은 규제 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합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권력은 피지배자들의 합의가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동원(mobilized)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아렌트는 커뮤니케이션과 권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의견(opinion)의 힘을 강조하였다. 또한 권력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룹에 있는 것이며 그룹이 지속되어야 그 그룹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의사소통을 통한 그룹 내에서의 합의와 그 합의를 기반으로 한 권력의 행사에 주목하였다(Arendt, 1970: 44).

하버마스(Habermas, 1977: 3-24) 역시 의사소통의 힘(communicative power)을 연구하였는데, 아렌트와는 달리 합의가 이루어졌어도 이데올로기와 같은 허구적 신념(illusionary conviction)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아렌트 이론의 위험성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하버마스(Habermas, 1987)는 의사소통행위 이론(communicative action theory)을 만들어서 이상적인 언술상황(ideal speech situation)에서 진실게임(challenging validity claims)을 하면 합리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오히려 권력관계가 배제된 이상적인 상황을 상정하게 되어 말, 상징(조작)과 권력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에서 멀어졌다고 할 수 있다.

말, 상징(조작)과 권력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미셸 푸코(Foucault, 1979; 1980)의 연구 또한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푸코는 매우 방대한 연구를 남기고 있는데 권력관계는 담론(discourse)의 생산, 축적, 순환, 기능 없이는 수립, 공고화, 혹은 실행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훈육(disciplinary power)의 담론은 정상과 비정상의 구별을 통한 권력관계의 규정을 유도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구별의 담론은 담론이 어떻게 권력을 생산하는지 그 메카니즘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구별, 분류 등을 통한 정상, 비정상 등의 정체성 부여는 푸코가 주 대상으로 하는 국내정치,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으로도 행해지고 있는데, 그러한 면에서, 다시 뒤에서 논하겠지만, 구별의 담론과 그 담론의 권력적 이용은 세계화 시대의 말과 상징의 권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다.

정치적 아젠다의 구성 역시 담론과 권력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치적 아젠다에 어떠한 의제를 넣느냐, 빼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특정 이슈에 대한 권력을 통제하는 주요한 메커니즘인데, 루크스(Steven Lukes)는 푸코와는 다르게 담론의 생산, 축적, 순환이라는 적극적인(positive)측면 보다는 특정 담론의 배제라는 소극적인(negative)측면에서의 권력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물론 푸코의 담론 생산, 축적, 순환이라는 분석들은 자연적으로 특정 담론의 배제를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루크스와 같은 내용의 연구라고 할 수 있으나 루크스의 연구는 보다 미시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담론의 배제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루크스(Lukes, 1974)의 이러한 연구 역시 말, 상징의 조작과 권력이 연결되는 중요한 메커니즘을 밝힌 작업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말, 상징(조작)이 권력으로 전환되는 몇 가지 중요한 기제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업적들이지만 그 대상이 국내정치 및 사회에 머물러 있고, 관찰자, 혹은 비판자의 시각에서 기술적으로 그 기제들을 연구하고 있어, 말, 상징(조작)을 권력으로 연결시키는 전략적, 실천적 이론개발에 있어서는 그 분석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론의 시대적 배경으로 인하여 최근의 세계화라는 환경적 변화를 그 논의 속에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2. 국제정치를 대상으로 한 연구

국제정치를 대상으로 하여 말, 상징(조작)과 권력 간의 관계를 밝히는 최근의 연구들은 대부분 구성주의 연구들이다. 그 중 리스(Thomas Risse)의 작업은 앞에서 언급한 하버마스의 이론을 국제정치에 도입하고자 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리스는 국제관계에서도 행위자들이 의사소통과정에서 더 나은 주장(better argument)을 하게 되면 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연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언술행위와 국제정치를 연결시킨 독창적인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언술행위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권력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 행위자의 이익과 정체성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만을 보여줄 뿐 어떻게 토론을 해야 어떠한 방식으로 이익과 정체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는지 그 기제를 실증적인 방법을 통하여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어떠한 방식이라는 측면에서도 언술행위를 통한 부정적(negative) 영향력의 행사보다는 긍정적인(positive) 결과를 유도하는 과정에 초점이 모아져 있어 언술행위의 다양한 권력전화 가능성 보다는 희망적 실천 가능성이라는 일부분만을 보여주는 사례연구에 가깝다(Risse, 1999: 529-559; 2000: 1-39)¹⁾. 리스의 연구, 특히 최근

1) 한편 Idea가 국내정치 구조에 의해 한계 지워진 초국경적인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를 통해 전달되어 영향을 미친다는 리스(Risse, 1994)의 연구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성주의의 연구에 선행하여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온 하스(Ernst Haas)도 지식과 권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한바 있다. 하스(Hass, 1990)는 특히 문제의 정의(definition)를 내리는 힘, 지식을 통한 합의의 과정을 거쳐 생겨난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정책을 행사하게 하는 힘 등, 지식이 권력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국제기구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다. 이와 유사하게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바넷과 피네모어(Barnett and Finnemore, 1999: 699-732)도 국제기구가 국가의 하위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국제기구의 문제정의 능력, 대상의 분류 (categorization)기능 등, 언술행위와 권력 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켈과 시킨크(Keck and Sikkink)의 초국경 단체의 초국경적 영향력 행사과정에 대한 연구도 언술행위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매우 흥미롭게 보여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특히 한 사회의 나쁜 관습적 행위를 바꿀 수 있는 논리, 담론의 구성, 전파에 있어서 담론 속의 논리가 간결한 인과관계의 구조(short causal story)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언술행위를 통한 권력행사를 비교적 체계화된 이론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어 언어, 상징(조작)의 전략개발에 큰 시사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언술행위와 권력 간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이기 보다는 초국경 행위자가 타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로 간결한 인과관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담론의 전파를 다루고 있어 말, 상징(조작)과 권력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론화하고 있지는 못하다. 하지만 세계화의 한 측면인 초국경 행위자가 담론을 통한 초국경적 영향력 행사를 하는 메카니즘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이다(Keck and Sikkink, 1998).

환경의 국제정치 논의에 있어서 하스(Peter Haas)의 인식공유체(epistemic community)논의 역시 말, 상징(조작)과 권력관계를 다룬 구성주의적 연구이다. 하스(Hass, 1992: 1-35, 187-224)는 환경문제와 같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전문가들의 지식과 분석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들 전문가들이 서로 공통의 규범, 인과관계논리, 해결책 등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인식공유체라고 개념화하고 이들이 지구 환경 정치에서 상당한 권력을 행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인식이라는 담론구조를 환경정치의 권력행사과정에 도입한 면에서는 말, 상징(조작)과 권력관계를 연구한 선구적 연구라고 할 수 있으나 권력행사의 구체적인 메카니즘을 밝히는 부분에서는 합의된 지식(consensual knowledge)이 권력에 연결되는 실증적 분석보다는 오히려 전문가 개인의 정치적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비의도적으로 보여주는 한계가 있다.

한편 최근 언력(言力)이라는 개념을 개발하여 말, 상징(조작)과 국제정치와의 관계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다나카 아키히고(田中明彦, 2000)

의 연구는 소위 특정 시기에 형성된 통설(通說)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미-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작업으로서²⁾ 국제정치와 언어, 담론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연결시키고자 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언력이라는 개념으로 말, 상징(조작)과 권력 간의 관계를 이론화하려는 작업이기 보다는 사례 중심으로 기술된 작업에 가까워 체계적 이론화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고전적인 현실주의에서도 국제관계에 있어서 여론(public opinion)과 권력 간의 관계를 연구한 작업들이 없지 않다. 이미 모겐소(Hans J. Morgenthau, 1973)는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세계여론(world public opinion)을 논한바 있고, 카(E.H. Carr, 1964)도 국제관계에 있어서 여론의 역할에 대하여 논한바 있다. 히스트(Paul Hirst)는 1930년대에 민족주의가 여론을 지배하고, 국가가 민족의 공식언어제정, 대중교육, 징병제를 통한 민족교육, 민족, 국민적 상징의 발견, 발명, 확산 등을 통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과정이 20세기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통찰하고 있다. 즉 미디어가 국제화되고, 다원주의화되고, 다민족문화가 공존하고, 대중적 개인주의가 발흥하면서 국가가 문화, 신념, 정체성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개인은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의견을 형성하고, 그러한 매체는 종종 국경을 넘어서서, 그리고. 인터넷, 위성방송, 디지털화된 매체 등이 국가의 통제를 쉽게 넘어서서 작동하게 되자 국가는 미디어의 지배자, 근본주의적 종교집단, 과격한 환경주의자들과 함께 의견형성을 위해 경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Hirst, 1998: 143).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 역시 말, 상징(조작)과 권력 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화된 이론화 작업이라고 할 수 없다. 단지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기술적 지적에서 그치고 있다.

III. 말, 상징(조작)과 힘의 관계: 국제정치적 이론화 작업을 위한 시론

1. 선행연구의 문제점과 이론적 과제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왕의 말, 상징(조작)과 국제정치에 있어서 권력 간의 관계를 연구한 작업들은 우선 국내 정치 사회를 주 대상으로 하여 이론화 작업을 하였거나, 아니면 국제정치학적으로 체계적 이론화를 부분적으로 시도하였거나, 혹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론화 작업이 있었다 하더라도 말, 상징(조작)과 권력 간에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기술적 지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교한 이론화 작업을 시도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말과 상징(조작)과 국제정치의 권력에 관

2) 이 면에서는 푸코의 연구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한 보다 정교한 국제정치적 이론화 작업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특히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물리적 권력도구가 많지 않은 한국에게 있어서 이러한 비물리적 권력도구를 연구하고 이론화 하는 것은 실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교한 국제정치적 이론화 작업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선행연구는 커슈너(Kirshner, 1995)의 통화력(monetary power)에 관한 연구이다. 커슈너 역시 직접 영향력을 사고팔고 하는 직접적인 물리적인 권력수단으로서의 통화가 아니라 일국의 통화와 타국의 통화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국제정치적 권력, 즉 통화에 의해 발생하는 소위 연성권력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관계에서 형성되는 국제정치적 권력의 기제를 매우 정교하게 이론화하고 있다.

물론 말, 상징과 통화를 바로 치환하여 이론을 개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세계화시대에 통화의 유통 속도, 접근 범위, 통화관계에서 생겨나는 국가간 관계의 밀도 증진 등의 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으며, 통화라는 것이 일종의 상징의 측면이 있어 세계화 시대 말, 상징, 그리고 국제정치적 권력을 이론화하는데 있어 커슈너의 이론은 좋은 출발점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커슈너(Kirshner, 1995: 45-114)는 통화관계의 조작(currency manipulation), 통화관계의 의존성 증대(monetary dependence), 그리고 통화체계의 전복(systemic disruption)등의 방법을 통하여 국가가 어떻게 통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이론화하였는데, 통화조작에 있어서는 환율의 의도적 하락, 혹은 상승을 유도하고 이를 복원, 혹은 가속화시키는 수법을 통하여 반대급부를 받아 내거나 혹은 압력을 증대시키는 기제를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통화관계의 의존성 증대는 통화와 통화와의 관계를 설정할 때 상대국이 자국 통화에 의존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통화관계를 제도화하여 자국의 통화, 경제정책에 대하여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게 하는 권력기제인데(Kirshner, 1995: 115-169) 이는 자연스럽게 공통의 이해관계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나이(Nye, 1991)가 말하는 연성권력(soft power)에도 가까운 권력기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화체계 전복의 수단은 지역통화체계이건 세계통화체계에서 비교적 중요한 통화를 보유한 국가가 통화체계를 전복하겠다는 위협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기제이다(Nye, 1991: 170-215).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서 출발, 응용하여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말, 상징, 그리고 국제정치적 권력 간의 관계를 이론화할 수 있는 유사한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커슈너가 시도한 것과 같이 통화관계의 조작, 설정이 아니라 말, 상징의 조작, 관계 설정을 통하여 권력이 형성되는 기제를 이론화하는 작업이 초보적인 수준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배경적 설명이 필요하다.

2. 이론개발의 배경: 언어, 상징 작용의 국제정치적 새로운 장(場)

20세기말부터 시작된 세계화는 19세기말의 세계화와 비교하여 세계화의 속도와 범위의 압축정도가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Harvey, 1989; Held et al., 1999). 이러한 속도와 범위의 압축 정도를 중심으로 한편으로는 20세기말부터의 세계화와 19세기말의 세계화와의 질적인 차이를 설명하는 논쟁이 있어왔고(Hirst and Thompson, 1996; Hirst, 1997: 73; O'Rourke and Williamson, 1999), 다른 한편에서는 20세기 말부터의 세계화가 과연 각 국가의 제도적 수렴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다(Suzanne Berger and Dore, 1996).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정치경제학의 범주에서 다루어졌는데 주요한 관심은 세계화라는 현상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과 세계화가 국내정치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세계화가 국가 간의 권력관계, 즉 국제정치의 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세계화가 국가 간 권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은 세계화가 기왕의 국가 군사력과 경제력에 어떠한 양적, 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기왕의 국제정치패턴과 국가주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세계화라는 현상은 국가 간 상호의존관계의 심화를 가져와 군사력과 경제력 등 물리력을 기반으로 하는 경성권력(hard power) 중심의 권력관계보다는 상호의존 관계를 조작하는 비물리적인 언어, 상징, 문화,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연성권력(soft power)의 권력관계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Nye, 1991; Nye and Owens, 1996).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의 세계화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최근 진행되는 세계화현상 속에서는 19세기말의 세계화와 비교하여 말과 상징의 전파속도가 급증하였고, 말과 상징의 전파범위가 더욱 크게 확산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 상징의 전파밀도(density)가 매우 촘촘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세계화와 함께 진행된 이러한 말과 상징의 특성은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매우 독특한 국제정치적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말과 상징의 전파속도와 범위, 그리고 밀도를 이용하여 하나의 국가가 다른 국가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권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화 시대의 독특한 연성권력을 구성하게 된다.

3. 말, 상징(조작)의 연성권력 이론

위와 같은 배경에서 여기서는 말, 상징이라는 비물리력이 권력으로 전화되는 이른바 말, 상징의 연성권력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말, 상징의 연성권력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본 논문은 말과 상징의 전파 속도, 범위, 밀도라는 세

가지 차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가설을 제시한다. 물론 이러한 네 가지 가설이 말, 상징의 연성권력 이론을 모두 포괄하는 가설의 집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말, 상징의 연성권력 이론을 계속 논의, 발전시키는 기초적 체계를 잡는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출발선이 된다고 생각된다.

(1) 상황변화 가속화의 가설

세계화, 정보화로 인하여 말과 상징의 전달속도와 이에 대한 시장을 포함한 범세계적 행위자들의 반응속도가 매우 빨라지게 됨으로 인해 어느 특정 시점과 장소에서 행해진 말과 상징적 조작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변화에 가속도를 붙이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가속화의 가설은 이미 변화하고 있는 현상을 강화하거나, 예측하는 발언이나 상징조작을 통하여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기제를 통하여 말과 상징(조작)이 권력으로 전화되는 것을 밝힌다. 이를테면 전황(戰況)이 상대방에게 불리할 때 방송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불리한 증거, 예측 등을 집중적으로 신속히 보도하여, 적군의 사기를 꺾고, 지원국의 지속적 지원을 유보하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전황을 더욱 급속도로 불리하게 몰아나가는 전략이 이에 해당한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또 하나의 가상의 설정은 급속히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정권에 대해 주요 강대국이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거나, 방관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되면, 그 정권의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특정 주요 강대국은 물리력을 하나 써 보지 않고도 말만으로도 원하는 결과를 가속화시키는 연성권력을 갖게 된다.

실제로 98년 초, 일본의 엔화가 절하되는 시점에서 미국의 재무장관과 경제 관련 인사들이 "엔의 급락에 대하여 시장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발언을 하여, 엔 절하를 가속화시켰고, 후에 미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엔의 가치를 끌어올려 줄 때 일본에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낸 사례가 있다. 즉, 97, 98년 일본이 아시아 금융위기의 와중에서 국내의 경기부양을 위한 미국이 원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자 당시 미국의 재무장관인 루빈(Rubin), 그리고 서머스(Summers) 재무 부장관 등이 일본의 경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발언을 계속하여 엔화의 급속한 평가절하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급속한 평가절하는 일본 경제에 단기적으로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 이를 막기 위하여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이근, 2000). 이러한 상황변화의 가속화는 특정 대상국, 행위자로 하여금 위기 상황의 임계치(threshold)에 보다 빨리 도달하게 하여 압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위기상황의 임계치를 사전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면에서, 그리고, 가속화의 전략이 통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면에서, 이 전략이 실패 한 후에 관계 악화라는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연성권력의 수단

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제임에는 이론적으로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네트워크 효과의 가설

네트워크 효과(network externality)란 일정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네트워크가 창출하는 가치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으로 언어와 상징의 차원에서도 가치를 권력으로 치환한다면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가 가능하다.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는 네트워크 효과를 갖는 중심국의 중심담론에 네트워크 참여자를 체계적으로 묶어(lock in) 중심국에 유리한 편견(bias)을 갖게 하는 일종의 권력적 기제를 가져와 정책결정자와 관련자의 사고틀, 국가행동 및 외교의 기준, 대항담론의 봉쇄 등의 영역에서 권력이 작동한다. 예를 들어 세계공용어로서 언어의 네트워크 효과를 갖고 있는 영어와 영미적 사고, 그리고 이러한 공용어 중심의 세계 학계와 언론은 영미 국가나 영어권 행위자가 중심담론을 형성, 전파, 압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러한 중심 담론의 내용에 치우쳐서 타국 행위자가 자연스럽게, 때로는 주눅이 들어 행위하도록 하는 효과를 창출한다.

일단 언어의 네트워크가 생기게 되면 다른 언어의 담론이 파고들 공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좁아지며, 따라서 그 언어 중심의 담론과 사고체계가 그 네트워크 안에 묶여 있는 행위자를 구속하게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 안에서는 다른 담론을 말하는 행위자는 배제되거나, 주눅이 들어 생존의 경쟁력을 잃어버릴 확률이 커지며, 따라서 경쟁적으로 행위자들이 그 언어나 언어권에 더욱 매달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국의 영미권으로의 유학생 증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영어조기교육, 영미권 신문, 잡지, 언론, 학자,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스타가 되는 현상이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보여주는 예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의 위력은 반대담론의 전파를 근원적으로 강하게 봉쇄하기 때문에, 연성권력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권력의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가령 한국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진 담론도 영어권 매체를 통하지 않고는 타국이나 외교 대상국에 알려지기 힘들며, 알려지지 못하는 담론은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네트워크 효과는 물리적인 국가간 힘의 균형에 변화가 있더라도 기왕의 권력관계의 지속성을 상당기간 연장하는 관성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 네트워크 효과를 위해서 정부나 주요 행위자는 장기적으로 자국의 언어가 널리 쓰이는 지역을 창출하고, 타국에 언어교육, 담론 보급 등을 하고, 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그 언어의 중심담론에 타국이 익숙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항하는 전략으로서 해당 언어를 통하여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 있으나 대항담론의 중앙으로의 진입장벽은 대항담론임이기에 원천적으로 통제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국의 사회과학이나, 언론을 주도하는 중심담론을 보면, 대부분 그 발원지가 미국이나 영국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고

전주의 경제학 담론, 강대국의 논리를 반영하는 국제정치의 현실주의 담론, 클린턴 행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정책 담론인 민주평화론, 그리고 냉전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정치 담론인 헌팅턴(Huntington)의 “문명충돌론” 그리고 후쿠야마(Fukuyama)의 “역사의 종언” 담론 등이 모두 영미권에서 나온 담론으로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 특히 미국, 영국의 담론 매체인 Foreign Affairs, Foreign Policy, Economist 등 유명한 잡지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싱크탱크와 주요 일간지의 웹사이트, CNN 등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그 언어의 네트워크에 속해있는 행위자들은 이들이 제시하는 사고틀과 아젠다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종속적 관계를 갖게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이 네트워크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가 가질 수 있는 연성권력의 인프라에 해당되므로 연성권력의 실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축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정체성 구분과 이미지 조작의 가설

세계화는 비슷한 내용의 말과 상징을 밀도 있게 넓은 범위에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정치 행위자에게 특정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한다. 즉 특정국가의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전파하면, 네트워크 효과와 연결되어 그러한 정체성의 구분이 형성되며, 그 경우 타 국가들이 그 정체성의 분류에 따라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불량국가”의 정체성이 A국에 부여되면 타국은 A국에 대하여 불량국가라는 정체성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정치적 행위를 하게 될 것이며 “우방국”이라는 정체성이 부여되면 그에 부합하는 국제정치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³⁾

반면, 정체성 구분의 희생물이 된 국가는 동일한 언어 상징의 밀도를 이용하여, 부여된 정체성과 반대되는 언어 및 상징을 의도적으로 밀도있게, 신속하게, 넓은 지역으로 반복 전달하여 기왕의 정체성에서 탈피할 수 있는 이미지 조작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언어와 상징의 기준의 네트워크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이미지 조작을 할 수 있는가가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된다. 그러나 이미 네트워크 균형(Balance of Network)에서 열세에 있다면 이러한 대항 전략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 다만, 스캔들과 조작된 증거 등 정체성 구분자에 불리한 상징, 담론 등을 폭로할 수 있다면 이는 네트워크 균형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의 기제가 될 수 있다. OECD에서 추진하던 다자투자협정(MAI)에 관한 비밀문서를 획득한 NGO운동단체들이 그 문서를 전세계에 인터넷으로 뿌려 MAI의 결렬을 가져온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3) 앞에서 언급한 Foucault의 담론을 이용한 권력이 국제정치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넷과 피네모어의 구성주의적 연구에서 국제기구의 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 그리고 구분(categorization)의 능력이 국제기구 권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정체성 및 이미지 조작을 통한 권력행위는 국가행위자, 특히 언어 및 상징 네트워크를 지배하는 국가행위자에 의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국가의 연성권력 연구에 더욱 적실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실례로,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부시 행정부에서 발표한 “악의 축” 발언이 이러한 정체성 구분 및 이미지 조작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대 테러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을 집중할 대상이 필요하였고, 초국경적으로 분산된 테러조직을 상대하기 보다는 테러조직을 지원하는 몇 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대 테러전을 수행하는 것이 용이하였기 때문에 몇 개의 국가를 선별하여 이들에게 대 테러전의 집중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체성과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명명하여 이들에게 “악”이라는 정체성과 이미지를 부여하였고, 미국이 지배하는 언어와 상징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러한 정체성과 이미지를 급속도로 집중적으로 전 세계에 전파하였다.

이렇게 세 나라가 “악의 축”으로 분류된 이상, 이들 국가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국가나,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행동에 제약이 가해지게 되어 있으며, “악의 축”으로 분류된 국가들도 그러한 제약 속에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이렇게 “악의 축”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한 미국은 타국들에게 대미외교 및 대 “악의 축” 외교정책의 기준을 제시하게 되어 물리력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도 타국이 미국의 정책을 따라오게 하는 연성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4) 신뢰성의 영향력 가설

정보통신 혁명에 의한 말과 상징 사용, 흐름의 폭발적인 증가는 풍부함의 역설(paradox of plenty)을 가져와 정보의 양보다는 그 정보가 믿을 만한 정보인가 하는 신뢰성이 더욱 중요해 지는 현상을 가져왔다(Nye and Owens, 1996). 따라서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보유, 지배, 이용할 수 있는 국가나 행위자가 다른 국가나 행위자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증가되었는데, 이러한 신뢰성의 국제정치는 정보의 신뢰성을 보유한 국가에 그렇지 못한 국가가 의존하게 되는 권력관계를 창출한다.

이러한 신뢰성의 영향력은 미국과 같이 첩보 능력과 정보 분석 능력이 뛰어난 국가가 독점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테면 타국가의 정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정확한 경기전망, 의혹 증거의 확보 등을 통하여 타국가로 하여금 자국의 분석과 정책을 믿고 따르게 하는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경제분야

에 있어서는 신용평가회사들이 쌓아 놓은 명성에 의해서 투자자나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새로운 영향력 행사의 한 단면이다. 신용평가회사는 그러한 신용을 무기로 국가의 정책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투자자의 급격한 투자 회수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성의 영향력은 국가 행위자 못지않게 비국가 행위자 역시 보유할 수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전문가들의 네트워크인 인식공유체, 신용평가회사, 혹은 그린스팬과 같은 개인 등이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⁴⁾ 그러나 이러한 신뢰성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는 상당한 영향력 상실의 위험을 항상 감수하여야 한다. 즉 신뢰성이 금이 가기 시작하면, 세계화 시대의 범위와 속도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신뢰성 하락의 가속도가 붙어 건잡을 수 없이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대 이라크전 이후 대량살상 무기의 증거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급격히 잃고 있는 것이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경제상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와 분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인지하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회수하면서 생겨난 아시아 금융위기도 신뢰성 상실과 영향력 상실이 동시에 급속도로 잃어나는 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성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행위자나, 타 행위자의 신뢰성에 흠집을 낼 수 있는 행위자는 세계화의 말, 상징 네트워크를 통하여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보다 빠르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IV. 결론

이상의 논의에서 세계화 시대의 말, 상징의 국제정치적 권력작용을 이해하고 실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이론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론들은 사실상 말, 상징(조작)의 연성권력이론 개발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과거의 사례를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전략,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의 이론은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면에서, 이론의 실천적인 차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개발된 말, 상징의 연성권력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 시사점을 찾아본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과 관련하여 말, 상징의 연성권력이론은 북한의 상황변화의 가속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말과 상징조작을 통하

4) 개인이 신뢰성을 바탕으로 초국경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베버의 카리스마 그리고 브르디외의 상징권력의 현대적, 국제정치적 재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 북한의 상황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성권력의 인프라가 어떻게 깔려있는가와 다른 환경변수들이 어떻게 작용 하는가 등 추가적 고려사항이 있어야 하겠지만, 만일 북한의 상황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이 한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면, 위에서 제시된 상화변화 가속화의 연성권력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북한의 상황변화의 가속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말과 상징(조작)이 최대한으로 통제되는 그러한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 금융체제 구축의 논의와 같은 수준에서 동아시아 언어네트워크 구축 논의가 필요하다. 세계금융체제를 보완하거나 위협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역금융체제를 만드는 것과 같이 세계 언어네트워크를 보완하거나 견제하기 위한 지역언어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동북아시아 혹은 동아시아는 사실 상 영어네트워크에 묶여 있는데, 동북아시아의 대체 네트워크를 한국에게 유리하게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장기적으로 이를 목표로 하는 언어외교, 문화외교를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중국어나 일본어 네트워크가 대체 네트워크를 구성할 가능성이 크나 한류나 출판시장의 선점, 번역소프트웨어의 개발, 배타적 담론시장의 구축 등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 네트워크 지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반면 세계화라는 조건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영어권의 언어 네트워크에 일정부분 남아 있을 필요도 있는데, 이 경우 지역언어 네트워크와 세계 언어네트워크 간의 연결성을 전략적으로 잘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체성 구분과 이미지 조작의 연성권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좋으나 한국은 연성권력 인프라의 면에서 볼 때 사용자보다는 피사용자의 위치에 더욱 가깝다. 이 경우 혹시 정체성 구분과 이미지 조작의 희생이 되는 것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대항매체의 확보와 신뢰성 있는 전문가 혹은 전문가 그룹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이라크 전에 위력을 발휘했던 알자지라 방송과 같은 대항 매체와 관련한 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며, 상대 담론의 허구와 조작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줄 수 있는 전문가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여기서는 연성권력 인프라와 신뢰성의 경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위에서 제시된 이론들을 바탕으로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프라와 전문가 그룹이 생겨나면 오히려 우리가 정체성 구분과 이미지 조작의 연성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겨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말, 상징의 국제정치적 연성권력 이론은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으나, 여기서 제시된 이론은 아직 초보적인 이론화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다 체계적인 이론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인 사례연구가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말, 상징의 국제정치적 연성권력의 새로운 기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기존의 틀에 통합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다. 그러나 본 연구가 앞으로 학계의 논쟁을 통하여 보다 많은 연구자의 관심

을 불러일으킨다면, 말, 상징의 연성권력이론뿐만이 아니라 한국적 시각이 반영된 연성권력의 일반적인 이론화 작업에 보다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 이 근. 2000. 「환율정책과 국가권력: 아시아 금융위기, 국제통화력, 그리고 미국 행정부의 독자적 영역」. 『국제 지역연구』 9권 4호. 서울대 국제지역원. pp.1-17.
- 田中明彦. 2000. 『워드 폴리텍스』. 筑摩書房.
- Arendt, Hannah. 1970. *On Violence*.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 Barnett, Micahel and Martha Finnemore. 1999. "The Politics, Power, and Patholog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3(4). Autumn. pp.699-732.
- Berger, Suzanne and Ronald Dore eds. 1996. *National Diversity and Global Capitalism*. Cornell University Press.
- Bourdieu, Pierre. 1994. *Language and Symbolic Pow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arr, E.H. 1964.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Second Edition)*. Harper Torchbooks.
- Foucault, Michel. 1979 *Discipline and Punishment: The Birth of the Prison* Vintage Books. Translated by Alan Sheridan.
- Foucault, Michel. 198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77*. Translated by Colin Gordon. Pantheon Books.
- Harvey, David.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Blackwell.
- Haas, Ernst. 1990. *When Knowledge is Power: Three Models of Change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aas, Peter. 1992. "Introduction: epistemic communities and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1). pp.1-35
- Haas, Peter. 1992. "Banning chlorofluorocarbons: epistemic community efforts to protect stratospheric ozone."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1). pp. 187-224.
- Haas, Peter. 1999 "Social constructivism and the evolution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governance." in Aseem Prakash and Jeffrey Hart eds. *Globalization and Governance*. Routledge. pp. 103-133
- Habermas, Jurgen. 1977. "Hannah Arendt's Communications Concept of Power." *Social Research* 44(1). pp.3-24.
- Habermas, Jurgen. 1987.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Translated by

- Thomas McCarthy. Boston: Beacon Press.
- Held, David, et al. 1999. *Global Transform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 Hirst, Paul and Graham Thompson. 1996. *Globalization in Question*. Polity Press.
- Hirst, Paul. 1997. "The Global Economy: Myths and Realities." *International Affairs* 73. pp. 409-425.
- Hirst, Paul. 1998. "The Eighty Years Crisis, 1919-1999: Power." in Tim Dunn, Michael Cox, and Ken Booth eds. *The Eighty Years' Crisis. International Relations 1919-1999*.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ck, Margaret and Kathryn Sikkink. 1998. *Activists Beyond Borders* Cornell University Press.
- Kirshner, Jonathan. 1995. *Currency and Coercion: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Monetary Pow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ukes, Steven. 1974. *Power: A Radical View* MacMillan Education Ltd.
- Moravcsik, Andrew. 1997. "Taking Preferences Seriously: A Liber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1(4). Autumn. pp. 513-53.
- Morgenthau, Hans J. 1973. *Politics Among Nations*. Fifth Edition. Knopf.
- Nye, Joseph. 1991.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August. Basic Books.
- Nye, J. and W. Owens. 1996. "America's Information Edge." *Foreign Affairs* March/April. pp. 20-36.
- O'Rourke, K. and J. Williamson. 1999. *Globalization and History*. The MIT Press.
- Risse, Thomas. 1994. "Ideas do not float freely: transnational coalitions, domestic structures, and the end of the cold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48(2). Spring. pp.185-214.
- Risse, Thomas. 1999.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Change: Arguing and Communicative Behavior in the Human Rights Area." *Politics and Society* 27(4). December. pp.529-559.
- Risse, Thomas. 2000. "Let's Argue!" Communicative Action i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4(1). Winter. pp.1-39.
- Weber, Max. 1978. "Domination by Economic Power and by Authority." in G Roth and C. Wittich Berkeley, eds. *Economy and Society*.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hapter III; Chapter X. p.941

A Theory of Soft-power in International

Politics: A Preliminary Attempt

Lee Geun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at theorization of soft-power in international politics. Since the concept of soft-power in international politics is yet to be accommodated within a sophisticated theoretical framework, as a first step for theory building, this paper suggests 4 preliminary hypotheses regarding soft-power: (1) acceleration of changes hypothesis, (2) network externality hypothesis, (3) identity differentiation and image manipulation hypothesis, and (4) influence of credibility hypothesis.

keywords: soft-power, words and symbols, Liberalism, time-space compression